

2 0 2 2 수 능 국 어

수 능 완 성

FULL-E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수능완성 FULL-E **문학편**은.....

🏠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문학 작품은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해석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이 모의평가, 수능,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의 원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전적으로 연계 작품을 학습해야 합니다.

🏠 EBS 연계 작품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관련 작품도 수록했습니다.

운문 문학의 경우 EBS 연계 작품이 단독 출제되는 경우보다 비연계 작품과 복합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펴볼 만한 관련 작품을 소개하여 비연계 작품까지
대비합니다.

🏠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결정적 장면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산문 문학의 경우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연계 교재에 실린 지문의 일부만 출제되거나
전혀 다른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품 간추려 읽기'를 통해
전체 줄거리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결정적 장면'을 통해 연계 교재에 실리지 않은
다른 주요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나 열려 있는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국어 전공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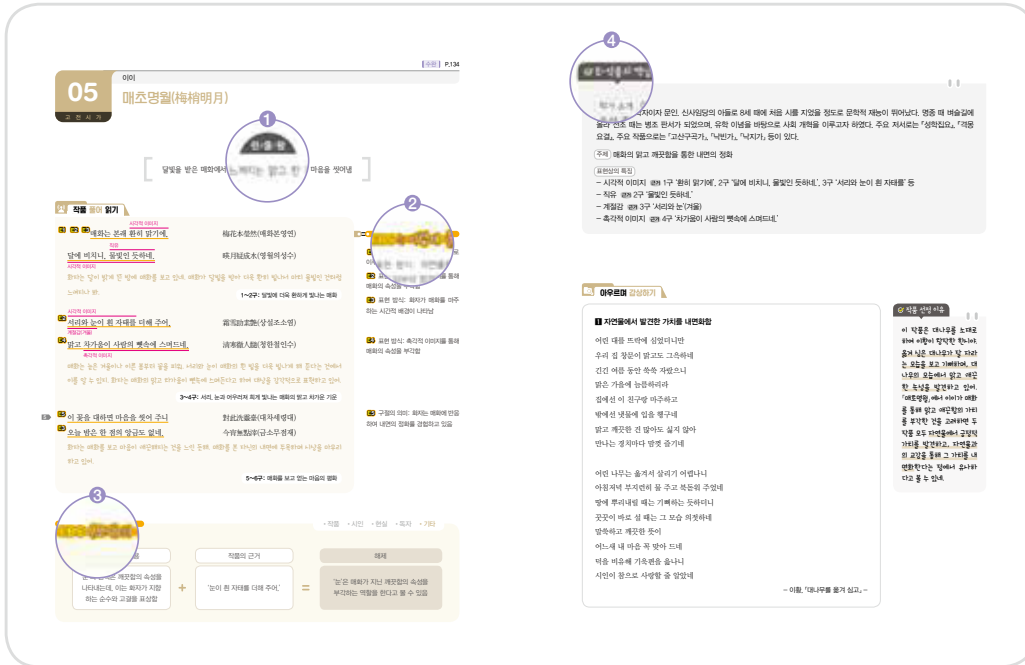
학습의 편리를 위해 '정답과 해설'은 책 속 책의 형태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과 학습 계획을 함께 안내합니다.

2주 완성 PLAN

DAY	PAGE	작품	학습 CHECK
1	P.010~P.031	01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02 이현보, 「생일가」 / 03 신흙, 「방옹시여(放翁詩餘)」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2	P.032~P.048	04 조준성, 「호아곡(呼兒曲)」 / 05 이이, 「매초명월(梅梢明月)」 / 06 정훈, 「탄궁가(嘆窮歌)」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3	P.049~P.072	07 충담사, 양주동 해독, 「찬기파랑가」 / 08 정도전, 「신도가」 / 09 안민영, 「매화사」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	P.073~P.098	10 송순, 「면양정가」 / 11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01 고재종, 「첫사랑」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5	P.099~P.110	02 박용래, 「연시」 / 03 신대철, 「추운 산」 / 04 문정희, 「울포의 기억」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6	P.111~P.129	05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06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 07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7	P.130~P.143	08 유치환, 「생명의 서(書) · 일장(一章)」 / 09 김기택, 「다리 저는 사람」 / 10 김혜순,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8	P.146~P.163	01 작자 미상, 「거타지 설화」 / 02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王秀才娶得龍女說)」 / 03 신광한, 「하생기우전」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9	P.164~P.199	04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 05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06 작자 미상, 「토공전」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0	P.200~P.219	07 작자 미상, 「옥주호연(玉珠好緣)」 / 08 홍성민, 「무염판속설(貿鹽販粟說)」 / 09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1	P.222~P.241	01 현진건, 「고향」 / 02 이제하, 「초식」 / 03 이청준, 「소문의 벽」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2	P.242~P.268	04 오정희, 「전갈」 / 05 박완서, 「환각의 나비」 / 06 황순원, 「곡예사」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3	P.269~P.300	07 박조열, 「오장군의 발톱」 / 08 강풀 원작 · 이만희 각본, 「그대를 사랑합니다」 / 09 이강백, 「파수꾼」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4	P.301~P.334	10 김기림, 「길」 / 11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 수특 33 염상섭, 「만세전」 / 수특 34 황석영, 「삼포 가는 길」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구성과 특징

Structure & Features



1 한/줄/평

작품의 핵심을 잘 보여 주는 한줄평을 수록하였습니다. 반복하여 확인함으로써 실전에서 작품의 핵심 내용이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합니다.

2 EBS는 이렇게 물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적절한 내용의 선지들을 분석하고, 근거가 되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습니다. 연계 교재에서는 작품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출제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출 문제로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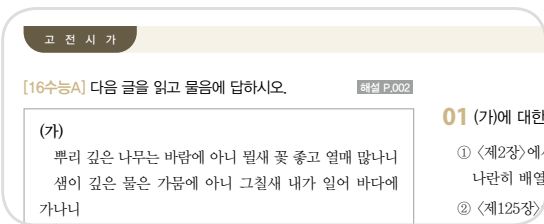
평가원 모의평가, 수능,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작품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EBS <보기>의 공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근거를 통해 해석 가능한 내용을 공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기>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E-작품의 핵심

작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작가 소개, 주제, 서술상/표현상의 특징, 주요 인물(산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친절하고 자세한 정답과 해설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오답 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운문

시내 작품 풀이 읽기

공명(功名)이 그저 이실까 수요(壽夭)*도 천정(天定)이라

내향에 내가가 글을 내우고 이름을 알리는 일에는 일이 없다. 또한 누연의 길고 짙은 화능의 뜰이라고 하네.

초창: 공명은 글이 없으며 수령은 화능이 정함

금세(金犀)의 구본 허리에 팔십 봉춘(八十逢春)이 몇 귀오

글씨*는 높은 바늘을 가진 사람이 휘라에 두르는 이야, 허리가 굽은 것은 오랜 관직 생활로 인해 나이 들고 다린 몸을 보여 주디. 팔십 내가 넘도록 난 황다는 또 한번 봄을 맞이하고 있어.

중창: 오랜 관직 생활 후 팔십 세가 넘어서 봄을 맞이함

연년(年年)에 오도 나리 연국은(赤君國)이 샀다

EBS 연계: 시어의 의미: 퇴지 대한 면죽같이 담긴 소

작품 풀이 읽기

작품을 수록하고 구절별로 자세하게 풀어 구어체로 설명합니다. 작품의 특징, 해석의 방향을 안내하여 작품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고전시가 작품의 경우, 현대어 풀이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아우르며 감상하기

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의 었다
저근땀 비라다가 마리 우회 찡기고저
귀 밧데 해묵은 서리를 녹여 불기 하노라

~ 우락, 「춘산에 눈 녹인 바람~」 ~

이 작품의 화자는 바람이 불다 날 죽이 죽은 것을 보고 이 타의 머리 위 서 곡 잎의 흰머리 어귀를 노랗하고 늙음에 대한 찬란 울음 나린년 거지 리 「생일」의 화가 들어도

• 현대어 풀이 •
봄의 산에 눈을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간 곳 었다
잠시 동안 비라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아우르며 감상하기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으나 서로 다른 내용의 작품 등 연계 작품과 함께 감상해 볼 만한 비연계 작품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 비연계 작품 출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작품 선정 이유'에서는 연계 작품과 아우르며 감상하기의 비연계 작품이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정리하였습니다.

EBS 수록 · 수완 연계 작품 한눈에 보기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수록된 모든 운문·산문 작품들의 핵심 내용을 해시태그(#)의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각 작품의 주제와 핵심 내용, 알아두어야 할 서술상/표현상의 특징 등을 빠르게 훑어보면서 연계 작품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Full-E 교재를 활용하여 특정 작품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경우, 함께 수록된 Full-E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산문

작품 간추려 읽기

고려 시대 평원 왕에 살던 화생은 양백 부를 여인과 입단고 가난했지만 날다른 대동으로 고을 누런에게 말해 태학에 국 학이란 토당이 어려온 탄에 동용되니 못한 태 올정하게 대내다가 정방이를 찾아가([EBS 연계]) 그리고 정방이 문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는데, 여인은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곧 옥황상제의 태자로 날 전임을 이야기해, 그리고 화생에게 국도의 태만거리 큰 잘 일에 있는 둘 후에 금력 한나를 물려놓아 달라고 한다([EBS 연계]) 화생은 여인의 말대로 금력을 물려놓았는데, 조복 하직을 한 여인이 이를 보고 가고 얼마 뒤 여인의 집 노복들에게 끌려가, 그 금 유당에 묻힌 언 돌전에서 화생이 묘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데, 여인의 부모에게 दा도되음을 인정하고 오해를 풀게 돼, 여인의 부 바니 딸을 잃으로 데려오자 딸이 다나지 않아 여인은 다시 찾는다. 여인의 부모는 신발상의 태이로 화생과 여인의 결혼을 여인이 시음을 전배하여 부모를 살드해([EBS 연계]) 마침내 두 나라는 부부가 돼, 그 후 화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를 더 올랐으며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

작품 간추려 읽기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구어체로 쉽게 설명합니다.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부분, 결정적 장면으로 수록된 부분은 각각 밑줄과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짧은 작품의 경우 '작품 전문 읽기'로 실었습니다.

결정적 장면

① 불우한 삶을 살던 화생이 정방이를 찾아가

고려조에 화생(何生)이란 사람이 있어 평원(平原)에 살았다. 집안이 대대로 한미한데다 일찍 부모를 잃었다. 장가 청혼하는 곳이 없었고 궁핍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풍도와 가뭄이 매우 뛰어나고 재주와 생각! 마음에서는 그의 어질음 칭찬하는 이가 많았다. 투인공인 화생을 소개하고 있어 화생은 어진고 대우를 받는 인물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리고 일년도 못하고 있었어. 고을의 수령이 그 명성을 듣고 뽑아 태학(太學)에 맡겼다. 화생은 점차 단정 서술로 올라가려는데 출발에 임하여 비복에게 말했다. "나는 위로 부모도 없고 아래로 처지도 없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겠것 많은 말을 하겠느냐? (從)은 신표를 버렸고, 사마상예(司馬相如)는 기둥에 글을 써서 약관에 모두 큰 뜻을 가졌었다. 내가 비복!"

결정적 장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장면들을 꼽아 수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나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부분에 형광펜을 긋고 구어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장면 선정 이유'에서는 해당 장면이 어떤 점에서 중요 하고, 문제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구어체로 쉽게 설명 합니다.

부록

부록 EBS 수록 연계 작품 한눈에 보기

* Full-E P10 #수능특강 Full-E 문해편, 교재에서 해당 작품의 상세 분석을 담은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번호	작품	작가	#핵심 내용 정리하기	Full-E P
01	부벽루(浮碧樓)	이백	#고려의 국운이 쇠퇴한 상황 #고구려의 멸망 #역사의 흥망 성쇠 #인간사의 무상함 #선경후정 #자연과 인간의 대비	P10
02	고사(古詩) 7	정약용	#부평초의 처지와 같은 백성들의 힘겨운 삶 #지배층의 횡포 #당쟁으로 인한 고통	P18

고전시가

01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P.010
02	이현보, 「생일가」	P.018
03	신흙, 「방옹시여(放翁詩餘)」	P.020
04	조존성, 「호아곡(呼兒曲)」	P.032
05	이이, 「매초명월(梅梢明月)」	P.038
06	정훈, 「탄궁가(嘆窮歌)」	P.041
07	충담사, 양주동 해독, 「찬기파랑가」	P.049
08	정도전, 「신도가」	P.052
09	안민영, 「매화사」	P.059
10	송순, 「면앙정가」	P.073
11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P.090

현대시

01	고재중, 「첫사랑」	P.096
02	박용래, 「연시」	P.099
03	신대철, 「추운 산」	P.103
04	문정희, 「울포의 기억」	P.106
05	윤동주, 「또 다른 고향」	P.111
06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P.121
07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P.126
08	유치환, 「생명의 서(書) · 일장(一章)」	P.130
09	김기택, 「다리 저는 사람」	P.136
10	김혜순,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P.140

고전산문

01	작자 미상, 「거타지 설화」	P.146
02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王秀才娶得龍女說)」	P.149
03	신광한, 「하생기우전」	P.155
04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P.164
05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P.179
06	작자 미상, 「토공전」	P.192
07	작자 미상, 「옥주호연(玉珠好緣)」	P.200
08	홍성민, 「무염판속설(貿鹽販粟說)」	P.213
09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P.216

현대산문

01	현진건, 「고향」	P.222	
02	이제하, 「초식」	P.228	
03	이청준, 「소문의 벽」	P.235	
04	오정희, 「전갈」	P.242	
05	박완서, 「환각의 나비」	P.249	
06	황순원, 「곡예사」	P.259	
07	박조열, 「오장군의 발톱」	P.269	
08	강풀 원작 · 이만희 각본, 「그대를 사랑합니다」	P.280	
09	이강백, 「파수꾼」	P.289	
10	김기림, 「길」	P.301	
11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P.307	
수특	33	염상섭, 「만세전」	P.310
수특	34	황석영, 「삼포 가는 길」	P.322

*학습의 편의를 위해 「수능특강 FULL-E 산문편」 미수록 작품인 「만세전」, 「삼포 가는 길」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작품 분석은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도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

·문학편·

고전시가

01

고 전 시 가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한/줄/평

강호에서 사계절의 흥취를 즐기면서 임금의 은혜를 생각함

작품 풀이 읽기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연 / 대유법 계절적 배경

화다는 강호에 봄이 찾아오니 흥겨움을 느끼고 있어.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 안주로다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물고기를 안주로 삼는 모습으로 강호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여 주고 있어.

이 몸이 한가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반복

화다가 자연에서 듣기는 한가함 역시 임금님의 은혜라고 하며 유교적 통 이념을 드러내고 있어.

제1수(춘사(春詞)): 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흥취

E1 강호(江湖)에 E2 녀름이 드니 E3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계절적 배경

강호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당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해.

E4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니 부람이로다

의인

신의가 있는 강 물결이 시원한 강 바람을 보낸다고 하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강 바람을 듣기는 화다 의 모습을 표현했군.

이 몸이 E5 서늘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촉각적 이미지

반복

여름에 서늘하게 피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

제2수(하사(夏詞)): 초당에서 한가로이 보내는 생활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솔져 있다

계절적 배경

강호에 가을이 찾아오니 물고기는 살이 올랐겠지? 가을의 풍요로움을 표현한 거야.

소정(小艇)에 그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화다는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배를 띄워 자연을 즐기려 해.

이 몸이 소일(消日)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반복

여유롭게 고기를 잡으며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는 건 역시 임금의 은혜라고 하고 있어.

제3수(추사(秋詞)): 고기잡이하며 세월을 보내는 여유로움

EBS는 이렇게 물었다

E1 시어의 의미: '강호'는 화자가 흥취를 즐기는 장소임

E2 표현 방식: 계절적 배경을 제시 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냄

E3 구절의 의미: 자연 속에서 한가 하고 여유로운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E4 표현 방식: 자연물을 의인화함

E5 구절의 의미: '서늘히움'은 임금의 은혜와 연결됨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계절적 배경

강호에 겨울이 찾아오니 눈이 많이 쌓였나 봐.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반복

산간을 쓰고 누역(도롱이)으로 옷을 삼아 입어 툇지 앓음 역시도 임금의 은혜라고 하며 유교적 통 사상을 드러내고 있어. 각 수의 동장에 '이 몸아-역군은이샷다'를 반복함으로써 통일감을 느끼게 하디.

제4수(동사(冬詞)): 눈 쌓인 가운데 안분지족하는 생활

• 현대어 풀이 •

강호에 봄이 찾아오니 깊은 흥이 절로 난다

막걸리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상성한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시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믿음직스러운 강의 물결은 보내는 것이 시원한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시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찾아오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러가게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하며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시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찾아오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짚, 띠 따위로 엮은 비옷)로 옷을 삼으니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시다 <제4수>

•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시인 • 현실 • 독자 • 기타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강호사시」의 각 수에서
초장과 중장은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은사의 생활을
제시하고, 중장은 그러한 삶을
임금을 향한 충의의 정신과 연결함

+

'역군은이샷다'

=

사대부들의 유교적 충 이념을
바탕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자연 속의 즐거움까지도 임금의
배려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여기는 발상을 담음

•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시인 • 현실 • 독자 • 기타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조선 시대에는 '천하의 모든 땅이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모든
백성이 왕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다.'라는 보편적 관념이 존재함

+

'강호', '초당'

=

조선 시대 보편적 관념에 따라
'강호'와 '초당'은
임금이 소유한 땅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작가 소개 맹사성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소박한 성격과 청렴한 생활로 청백리의 상징으로 통한다.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 밝아 향악을 정리하였고, 최초의 연시조인 「강호사시가」를 창작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유유자적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함

표현상의 특징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큰개** 제1수 '봄' → 제2수 '여름' → 제3수 '가을' → 제4수 '겨울'
- 반복 **큰개** '이 몸이~역군은이샅다'
- 의인 **큰개** 제2수 '유신헌 강파'
- 촉각적 이미지 **큰개** 제2수 '서늘하움'

아우르며 감상하기

■ 자연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제1수>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7렛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호거든 더욱 무심(無心)호애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바불 뿌고 녹류(綠柳)에 고기 썬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비 미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로실가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호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호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애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돌 니즌 스킨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십장홍진: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 어수선한 세상사.

• 현대어 풀이 •

이 세상살이 가운데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 어부의 생활이로다 / 한 척의 조그만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겠는가 <제1수>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이고,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속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얼마나 가려 있는가 / 강호(자연)에 밝은 달이 환하게 비치니

작품 선정 이유

이 작품은 「강호사시가」와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어. 그러나 「강호사시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 여기며 한가함과 여유를 즐기고 있는 데 비해, 「어부단가」의 화자는 인간 세상(독세)을 '십장홍진'에 비유하면서 독세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어부단가」 독 자연은 독세의 근심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서의 공간으로 해석되기도 해. 또한 온전히 자연을 즐기는 「강호사시가」의 화자와 달리 「어부단가」의 화자는 독세를 벗어나 자연 속 '어두'에 누워서도 '장안'과 '북궐'에서 연상되는 나라와 임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16수능A]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P.002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필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
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
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복년: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성신: 훌륭한 임금의 자손.

*낙수에~믿겠습니까: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피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2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장 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학편·

현대산문

09 현대 산문

이강백 파수꾼


한/줄/평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는 파수꾼의 외침 속에 숨겨진 진실

작품 간추려 읽기


① 수완

황야에는 이리 떼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망루가 있어. 파수꾼 '가'는 드높이 솟은 망루 위에 앉아 주변을 날피다가 이리 떼를 발견하면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고,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요란하게 양철북을 두드리며 이리 떼의 습격을 마을로 알리지. 두 사람은 파수꾼이 된 이후로 평생을 망루에 머무르며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

'다'는 얼마 전 새로 이 망루에 오게 된 신참 파수꾼이야. 파수꾼의 자질을 타고났다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힘입어 파수꾼 역할에 자원하였지만, 막상 망루에 와 보니 이리 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벌벌 떨기만 할 뿐이야. 당연히 이리 떼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망루 위에는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하였지. ( 결정적 장면 ①) '다'는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에 상심하는데, '나'는 평생을 외롭게 지내야 했던 망루에 '다'가 온 덕분에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며 '다'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

'나'와 '다'는 식량 운반인이 가져다준 음식들로 그럴싸한 저녁을 먹은 뒤 잠시 눈을 붙이기 시작해. 새벽녘이 되어 문득 잠에서 깬 '다'는 요란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이리 떼가 몰려오면서 내는 소리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홀로 망루에 앉아 있는 '가'에게 말을 걸어 보지만 대답이 없다, 그마저 잠에 빠져들어 이리 떼의 습격을 확인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이에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망루 위에 올라가는데, '다'는 그곳에서 황야의 아름다운 새벽 하늘을 보고 감탄하게 돼. 그런데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가'가 벌안간 '이리 떼다, 이리 떼!'라고 외치고, 기겁한 '다'는 급하게 망루 아래로 내려가. 하지만 '가'가 금세 다시 잠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자 '다'는 한 번 더 망루 위로 올라가는데, 하늘에 흰 구름만 떠 있는 평화로운 황야를 보며 마치 기계처럼 '이리 떼다. 이리 떼!'를 외치기 시작하는 '가'를 보고는 마침내 진실을 깨닫게 돼. 처음부터 이리 떼 같은 건 없었던 거야. ( 결정적 장면 ②)

② 수완

이에 '다'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마을의 훈장에게 편지를 보내. '다'의 편지를 받은 훈장은 그를 만나기 위해 망루로 찾아오. 훈장과의 대화에서 '다'는 훈장이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속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훈장에게 지금까지도 자신과 함께 진실을 밝히자고 이야기해. 훈장은 '다'의 제안을 수용하는 척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다'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려고 들지. 결국 '다'는 훈장의 교묘한 회유에 설득당하여, 망루까지 몰려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훈장의 뜻대로 거짓을 말하게 돼. ( 결정적 장면 ③) 이로 인해 '다'는 평생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

결정적 장면

① 이리 떼를 감시하는 황야의 망루와 세 명의 파수꾼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들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생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에게서 들으셨던 거죠. 이제 와선 저 망루 위의 파수꾼은 전설적 인물이 된 것이지요. 또 다른 파수꾼들,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루 아래에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

나: **E9**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 …… 고마워요.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마을 사람들이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애야, 괜찮겠니?

다: ……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나.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혼당의 거둬맡에 녹아 넘어간 '다'는 망루로 몰려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리 떼다!'를 외치
으로써 결과적으로 혼당이 진실을 은폐하는 일을 돕게 되었어.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리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하겠
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여 돌아가십시오. 가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
가십시오.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위선적인 권력자인 혼당, 그를 도와서 거둬맡을 수호하는 일에 충실히 동조해온 '가',
그동안 권력자의 부정에 일조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황에 눈응할 뿐인 '나',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를 밝히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현
실에 무릎 꿇은 '다'까지. 「파수꾼」은 이 모든 인물이 등장하는 결말부에서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이라는 거둬맡이 진실로 둔갑한 뒤 더욱 공
고해지는 답답한 현실을 보여 주며 마무리가 돼.

• EBS는 이렇게 물었다

E4 구절의 이해: 파수꾼 '다'가 쓴 편지에 담긴 내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망루로 몰려옴

E5 인물의 심리: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보여 줌

E6 소재의 기능: '가시 울타리'는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드러냄

E7 인물의 심리: 상대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 줌

E8 인물의 심리: 파수꾼 '나'는 '촌장'에게 이리 꺾질을 선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짐

E9 인물의 심리: 파수꾼 '나'는 '다'의 질병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장면 선정 이유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수꾼 '다'와 촌장 사이의 갈등이 동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야. '다'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리 떼 때문에 망루에서 일생을 살뜰하게 보내야 하는 파수꾼의 삶과, 항상 험된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마을 사람들의 삶 모두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촌장은 이를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이 장면에서 촌장이 보여 주는 말과 행동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현실을 풍자하고자 한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또한 파수꾼 '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자 했으나, 결국 힘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깨어 있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정리하자면, 「파수꾼」은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답답한 현실을 황야에 있는 마을에 빈번 우화적 기법을 통해 그려낸 작품인 거지.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p>「파수꾼」에는 권력자의 거짓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자신이 부적절한 권력 유지에 일조하고 있음은 알지 못하는 등 무비판적으로 권력자에 복종하는 인물들이 등장함</p>	<p>연4 결정적 장면 ①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 온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러갔다.'</p> <hr/> <p>연4 결정적 장면 ② '나: 저분은 말이다, 지금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단다. 단 한 번도 이리 떼를 놓친 적이 없었어.'</p> <hr/> <p>연4 결정적 장면 ③ '촌장: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p>	<p>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의 출현을 알리는 파수꾼 '가'의 외침은 권력자의 거짓말을 유지하는 데에 일조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줌</p> <hr/> <p>파수꾼 '가'가 이리 떼를 감시하는 일에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믿는 파수꾼 '나'는 부적절한 권력 유지에 일조하게 된 무비판적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줌</p> <hr/> <p>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단결했다는 촌장의 말은 부적절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신과 이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함</p>
<p>「파수꾼」은 거짓에 바탕을 둔 권력이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당대의 부정적 사회 현실을 드러냄</p>	<p>연4 결정적 장면 ④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거나 거냐?~질서, 그게 뭔지 난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p>	<p>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를 통해 마을을 지킨다는 촌장의 말은 그가 거짓에 바탕을 둔 권력으로 마을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부정적인 인물임을 보여 줌</p>

작가 소개 이강백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다섯」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현실적인 문제들에 주목하여 권력의 횡포와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인간 본성의 탐구 등을 주제로 한 희곡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 또한 서사극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여럿 남기기도 하였다.

주제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만연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서술상의 특징

- 해설자의 등장, 관객을 극중 상황에 참여시키는 등의 장치를 통해 서사극(실험극)의 특징을 드러냄 **근거** '해설자, 슬그머니 들어와서 초생달을 떼어간다.',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등
-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모티프로 하여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풍자함
- 파수꾼 '다'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회유책을 구사하는 촌장의 모습을 통해 당대 권력층을 향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주요 인물

촌장	이리 떼의 습격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딸기'와 같은 실리를 독차지하는 위선적인 권력자
파수꾼 '가'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리 떼의 출현을 알려 촌장의 거짓말과 권력 유지에 동조하는 인물
파수꾼 '나'	촌장의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파수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데에 일조하는 인물
파수꾼 '다'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밝히려고 하지만 촌장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실패하고 마는 인물

[0909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P.044

파수꾼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다’는 어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파수꾼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파수꾼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파수꾼 나: 보렴, 밤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A]

파수꾼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파수꾼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파수꾼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구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텃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파수꾼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짙레 덩굴 밑이던가요…….

파수꾼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텃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와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텃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 이강백, 「파수꾼」 -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 ③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 ④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난다.

EBS **수특** **수업** 연계 작품 한눈에 보기

· 문학편 ·

부록

• Full-E P의 은 『수능완성 FULL-E 문학편』 교재에서 해당 작품의 상세 분석을 담은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번호	작품	작가	#핵심 내용 정리하기	Full-E P
01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맹사성	#강호에서 즐기는 사계절의 흥취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최초의 연시조	 P.010
02	생일자	이현보	#87세 생일날을 맞아 읊은 시조 #생일을 맞이한 감회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P.018
03	방옹시여(放翁詩餘)	신흥	#자연에서 지내는 즐거움 #임에 대한 그리움 #시름 #정치적인 시련을 겪고 창작	 P.020
04	호아곡(呼兒曲)	조존성	#강호한정 #아히야 #고사리 캐기, 낚시, 밭 갈기, 술 마시기 #정쟁 후의 전원생활	 P.032
05	매초명월(梅梢明月)	이이	#달빛을 받아 빛나는 매화 #매화의 맑고 깨끗한 기운 #매화를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	 P.038
06	탄궁가(嘆窮歌)	정훈	#가난에 대한 한탄과 체념 #가난한 처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 #가난 귀신과의 대화 형식	 P.041
07	찬기파랑가	총담사, 양주동 해독	#기파랑의 높은 뜻과 고매한 인품을 흠모하는 마음 #화자와 달의 문답 구조 #10구체 향가	 P.049
08	신도가	정도전	#새로운 도읍 예찬 #태조의 덕 칭송 #개국 공신 정도전의 자긍심 #목적성을 띤 악장	 P.052
09	매화사	안민영	#매화와 함께 취흥을 즐기 #빙자옥질 #아치고절 #강인한 생명력 #예찬	 P.059
10	면양정가	송순	#면양정 주변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풍류 #계절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P.073
11	사우가(四友歌)	이신의	#네 가지 자연물(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을 예찬 #지조 #외부적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삶의 태도 지향	 P.090

문제 P.014

고전시가 01

강호사시가 [맹사성]

정답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④
	07 ②	08 ③				

[01~03] 16수능A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맹사성, 「강호사시가」

01 ⑤

정답 풀이

〈제2장〉에서 자연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삶과 차이점을 드러내며 대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제125장〉에서는 자연 현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를 잘 맺는 것과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은 모두 근원이 깊고 튼튼해야 한다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② 〈제125장〉의 초장에서는 종결 어미 '-니'가 사용되었고, 중장에는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종장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니니까'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행마다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제2장〉은 전언의 수신자(청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제125장〉은 '임금하'에서 전언의 수신자(청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은 '천세', '누인가국', '복년', '성신', '경천근민', '낙수' 등의 한자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우리말의 어감을 살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②

정답 풀이

(나)의 〈제1수〉~〈제4수〉는 초장의 전반부에서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역군은이샷다'라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제2수〉~〈제4수〉 초장의 후반부 '초당에 일이 업다', '고기마다 살 썬 있다', '눈 깊이 한 자가 넘네'에서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적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제1수〉 초장의 후반부 '미친 흥이 절로 난다'에서는 구체적 사물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

〈제1수〉의 중장 '탁료계변에 금린어가 안주로다'에서는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한가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제2수〉의 중장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에서는 강의 물결과 바람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그리고 〈제3수〉의 중장 '소정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에서는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강에 띄워 둔 모습을 통해 삶의 여유로움이 드러난다. 그러나 〈제4수〉의 중장 '삿갓 빗기 쓰고 누역(비웃)으로 옷을 삼아'에서는 화자의 옷차림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3 ④

정답 풀이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이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정계를 떠난 선비'로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개인적 삶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대부'로서의 모습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는 '사'와 '대부',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박준'의 진술을 통해 그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박준'은 소설 쓰기를 통해 전깃불 앞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기 진술'을 이어 간다. 이 과정은 <보기>에서 말한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에서 '박준'은 '자기 진술'을 하면서도 전깃불의 공포에 시달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박준'의 정신적 외상은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의 대결, 즉 분단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산문 09

파수꾼 [이강백]

정답 01 ③ 02 ③ 03 ③

[01~03] 0909모평
이강백, 「파수꾼」

01 ③

정답 풀이

'춘장'은 무대 위에서 '파수꾼 다'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파수꾼 다가 보냈던 편지를 읽어 보았다고 하며, 그 운반인이 '사람들에게 떠벌'린 탓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무대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들어 '파수꾼 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므로,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윗글은 이리 떼를 경계하는 '파수꾼'들의 일터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춘장'이 파수꾼이 있는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한 사람들 중 일부가 '망루'를 부수기 위해 온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공간적 배경은 파수꾼들의 일터인 망루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 황야에 위치한 마을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
- ④, ⑤ (중략) 이전에는 '파수꾼 다'가 '파수꾼 가', '파수꾼 나'와 '이리'의 실존 여부에 대해 대립하고 있으며, (중략) 이후에는 '파수꾼 다'와 '춘장'이 '이리'의 실존 여부를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중심 갈등은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와 진실을 감추려는 '춘장' 사이에 나타나며, 이를 통해 거짓이 만연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